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9호

발행인 : 박중우
발행일 : 2023년 5월 8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2023 세계3.8여성의 날을 앞두고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는 8명의 여성조합원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여성들의 삶과 노동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달아있었습니다. 임금, 일자리 배치, 진급 등 노동현장에서 성차별을 경험하고, 심지어 직장 내 성희롱을 겪기도 합니다. 대전충북지부도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여성을 향한 차별에 맞서 싸우고, 구조적인 성차별에 균열을 내겠습니다. 성평등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멋진 금속언니들의 뒤를 잇고파 개별조합원 이수정



“입사 초기부터 듣기 불편한 말을 많이 들었어요. 친구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거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면서 옷차림에 대해 평가를 하거나, 제가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여자애가 있어서 좋겠다는 등의 말을 들었어요. ‘여자라서’를 붙이며 커피 타라고 시키고, 사람 접대하는 일을 시키면 정말 싫거든요.”



노동조합을 지키는 힘 콘텐탈지회 조합원 조혜미(좌) 김시연(우)



혜미 “일하면서 애기들 키울때 애가 아프다고 연락오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는 개인 사정이고 집안 사정이지 회사랑 뭘 상관이나면서 휴가를 못쓰게 할때가 있었어요. 남자들이 애를 돌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애키우는 여자들만 발을 동동거렸죠. 눈치보면서 음료수 갖다 바치면서 휴가 쓰고 그랬어요.”

시연 “저도 연대를 갔을때 어느순간 느꼈어요. 이렇게 연대하는게 그분들한테는 힘이되는구나 연대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누군가 이 글을 읽는 분이 있다면, 투쟁하는 사업장과 노동조합과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고 함께 있어주자고 말하고 싶어요.”



함께 살기 위해 시작한 길 테스트테크지회 노동안전부장 오진실



“관리자들이 성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느낌은 들어요. 남성 관리자가 노크도 없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서 캐비닛을 그냥 열어본다던가 이런 거는 너무 상식 밖이잖아요. 노조 만들고 저런 일이 있었다는게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관리자들이 이런건 범죄야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진짜 인식 자체가 너무 낮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성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은 계속됩니다

대의원 1순위 대한이연지회 조합원 한송희



“사람이 뭔가 ‘이건 아닌 거 같은데, 아닌 거 같은데.’ 이런 마음이 누적이 되다 보면 한번은 터지더라고요. 막상 하고 나니 속도 시원하고, ‘말하니 개선이 되는구나. 그럼 다음엔 이걸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긍정적인 경험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행동이 변화를 일으키는 경험들이요.”



여성노동자의 목소리 현대오토넷사내하청지회 여성부장 연선희



“여성 간부 수가 많이 늘어나니 여성 노동자들이 궁금한 부분들을 조금 더 편하게 간부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여성부장을 맡으면서 현장 분위기나, 조합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노조에 이야기 해주고, 또 노조가 전할 이야기는 전하면서 중간에서 서로서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정년까지 지켜준 노동조합 한국KDK지회 사무장 신금자



“그 당시가 우리 딸이 유치원 다닐때였어요. 한창 손 많이 갈때였는데,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고 했죠. 이제는 우리 딸이 42살이 다 됐네요. 노동조합 사무장을 맡게 되면서 딸한테 말했더니 기억하더라고요. “옛날에 맨날 이거(투쟁 손짓) 하고, 노래 불렀는데” 하면서 웃더라고요. 뭘 또 사무장까지 했나고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하는 일을 묵묵히 응원해주는 지원군이예요.”



한라공조 1호 여성엔지니어 한온시스템대전지회 정책부장 김하명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들보다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걸 찾아내고 그 부분을 부각시키고 영역을 만들어야 하는거 같아요. 투쟁 목소리도 너무 강하게만 하지 않고 조금은 온화하게 바꾸고, 색깔도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파스텔톤이 들어가 모두를 포용하고 받아 들일 수 있는 이미지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금속노조에 여성의 색을 입혀나가면 좋겠어요.”

